

#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2호 [루계 제2245호]

주제 102  
(2013). 10  
12  
토요일  
음력 9. 8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창건 68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표시 하시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경진하고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이 모셔져 있는 훌에 들어서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옆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은 우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

나가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참가

자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의 훈장보존실, 사적승용차와 전동차, 배, 텔차보존실들을 돌아보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결승경기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는 뜻깊은 10월 10일 전국도대항체육경기 대중체육부문 여러 종목의 결승경기가 평양체육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체육선수들과 관람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면서 정력적인 령도로 체육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평안남도팀과 남포시팀 사이의 너자배 구결승경기가 진행되었다.

너자배구결승경기는 평안남도팀의 승리로 끝났다.

이어 민족체육 및 오락경기들이 있었다.

씨름경기에서는 평안북도팀이 1등을

하였다.

공안고 머리우에 이고 달리기경기에서는 황해남도팀이, 이어 달리기경기에서는 남포시팀이 우승하였다.

이날 바출당기기결승경기는 장내를 들었다놓으며 도대항체육경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기세를 울리며 승부를 겨룬 두 팀간의 경기에서는 평안북도팀이 이겼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선수들

이 사기충천하여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칠 때마다 박수를 보내주시였다.

경기에서 이어 전국도대항체육경기 종합 순위가 발표되고 시상이 있었다.

종합순위 1등은 평안남도, 2등은 황해남도, 3등은 남포시, 4등은 함경북도, 5등은 황해북도, 6등은 강원도, 7등은 함경남도, 8등은 자강도, 9등은 양강도, 10등은 평안북도가 하였다.

도대항체육경기가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면서 터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

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선수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체육경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앞으로 도대항체육경기를 정례화하고 민족체육에 힘을 넣어 누구나 건강한 체력으로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조선로동당창건 68돐 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경축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 《조선로동당 만세》가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당창건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을 축하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정을 터치는 관람자들 속에서 구봉령의 김성녀를 비롯

한 여성공자들을 알아보시고 따뜻한 격려해주시였다.

서곡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중창 《조국찬가》, 기악과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여성독창 《나의 길》, 경음악 《내 삶이 꽂펴난 곳》, 여성독창과 방창 《조국과 나》, 현악4중주 《10월입니다》, 여성6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여성독창 《나래치자 선군조선 천리마여》, 판현악과 남성합창 《우리의 종창우에 평화가 있다》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대대로 수령복, 당복이 꽂혀난 이 땅 위에 사랑과 정으로 사회주의화원을 펼쳐주고 온 나라 인민을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을 구가한 경음악과 노래련곡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 주었다.

출연자들이 부르는 남성합창 《우리 앞날 밝다》, 여성중창과 합창 《사회주의 지키세》는 희세의 천출위인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승리의 신심넘쳐 사회주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역전 기상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든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충정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선군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연은 혼성합창 《위대한 그 이름은 승리의 기치》, 종곡 《조선로동당 만세》로 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또다시 터치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세차게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

에게 손을 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합동공연이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어서 흥접을 데 없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이런 혁명적인 예술단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관람 할 수 있게 10월 17일까지 공연을 계속 할 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고 교육자 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을 맞으며 평양의 봉홍네거리에 특색있게 일떠선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준공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이 9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시였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으로 지식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의 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울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가 삼가 꽃다발을 드리였다.

준공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박봉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현대적인 살림집을 준공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당의 은정속에 각종 편의시설들과 소공원, 특색있는 실내휴식터들까지 꾸려져있으며 현대적인 가구와 비품들이 방마다 그흔히 갖추어진 궁궐같은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섰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누리게 된 이 행복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교육자들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특전이다.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원들을 애



국자들이라고 높이 내세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자살림집건설을 봄소 맡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지구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지만 령도자의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교육자들을 위한 궁궐 같은 살림집이 일떠선 경이적인 현실은 일찌기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속에 값높고 보람찬 삶을 누리는 조선의 교육자들처럼 행복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다.

연설자는 온 나라 전체 교육자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부강조국의 휘황한 앞날을 앞당겨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

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연설자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당의 령도따라 내 나

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온 세상에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자고 호소하였다.

준공식은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또다시 환영곡이 울려퍼지는 속에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준공식장은 크나큰 격정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전체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새로 일떠선 살림집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설주동지와 함께 새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울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격정에 겨워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 답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새 살림집에서 교수와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면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루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가 당의 령도따라 내 나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완공을 앞둔 아동병원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정형과 의료설비들의 설치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첨단의료설비들을 그흔히 갖춘 여러 치료실들을 만족하게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집중치료실의 치료조건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 주기 위한 대책도 세워주시었으며 여러 수술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도도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동병원은 모든 치료실들과 입원실들은 물론 요소요소, 구석구석까지 당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된 병원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최근에 일떠선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구강병원과 함께 아동병원도 전문병원으로서의 체모를 훌륭히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이 병원은 우리 당의 보건정책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병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동강 맑은 물이 구슬처럼 흐르는 문수지구에 자리잡고 있는 아동병원의 이름을 《독류아동병원》으로 친히 명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연혁소개 실을 돌아보신 다음 각종 연구실들과 실험실들, 전자도서관, 제품보관실, 버

섯재배장 등 연구소의 여러곳에 들리시여 건설정형과 연구사업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전축미학사상에 맞게 버섯연구소건설을 훌륭히 완공한데 대하여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 연구 및 실험실들과 버섯재배장은 물론 사무실, 기본청사와 보조청사를 련결하는 외랑, 현판부, 휴식장 등 모든 요소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특색있게 건설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의도대로 버섯연구소의 무진화를 실현하고 지열에 의한 난방체계를 도입하였으며 현대적인 실험기구들과 설비들을 그흔하게 갖추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버섯기질발효기를 비롯하여 연구사업과 버섯재배에 필요한 설비들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하여 설치한것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나라를 버섯의 나라로 만들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는데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버섯생산바람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국도처에 능력이 큰 버섯공장들과 버섯생산기지들이 꾸려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버섯생산의 공업화, 과학화를 실현하려면 과학연구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의 전경을 바라보시였다.

며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하게 정말 잘 건설했다고, 군인건설자들이 일을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당창건기념일까지 끝낼때 대하여 지시하였는데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것을 체질화한 인민군대이기에 기어이 해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혁명군대의 본래이라고, 인민군대에 말길 보람이 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앙버섯연구소건설을 통하여 당이 부르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달려나가 결사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의 고유한 모습, 당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시금 표시하였다고 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버섯연구소를 돌아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참여한 군부대의 지휘관들, 연구소의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육종장 배치도와 전망계획도 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육종연구소, 관리청사, 문화회관, 종축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산기슭마다에 특색있게 건설된 축사들과 새로 조성한 풀판들, 아담한 살림집들이 한폭의 그림마냥 안겨오는 육종장의 면모된 광경을 바라보시며 군인건설자들이 많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육종장 1단계 건설을 당창건기념일까

지 끝낼때 대한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불과 4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훌륭히 판찰한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군인들에게 더 많은 고기를 먹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곳 육종장은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당의 방침관찰에서 전초기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것만큼 지금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육종장건설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주도세밀하게 밀고나감으로써 이 지구를 현대적인 육종장으로 더 훌륭히 변모시켜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 2단계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익철이 사업하는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을 현대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교시판과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현지지도표식비,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여러 직장들과 문화회관 등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실내와 설비들의 기술적특성,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생활정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공장내외부형편과 일용품들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고 오늘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것은 기업소를 21세기 일용품공장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 일용품생산의 양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적은 로력을으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며 근로자들의 토동조건과 생활환경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 주다면 공장현대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현대화하는데서 목표를 높이 세워야 한다고, 모든 생산건물은 물론 문화후생시설까지도 어제와 오늘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게 완전히 때벗이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건설에서 설계와 시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기업소가 일용품공장으로서 온 나라의 본보기가 될수 있게 유동한 설계가들도 보내주고 전투력있는 군인건설자들도 파견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현대화에 필요한 최신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는것을 비롯하여 공장현대화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신께서 친히 풀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뜻깊은 날에 원수님께서 몸소 공장을 찾아주시고 귀중한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에게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장군님의 님원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일을 잘해나가자는 의미를 담아 기업소의 이름을 《10월8일공장》으로 부르자고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애국현신의 장정을 더듬어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올해에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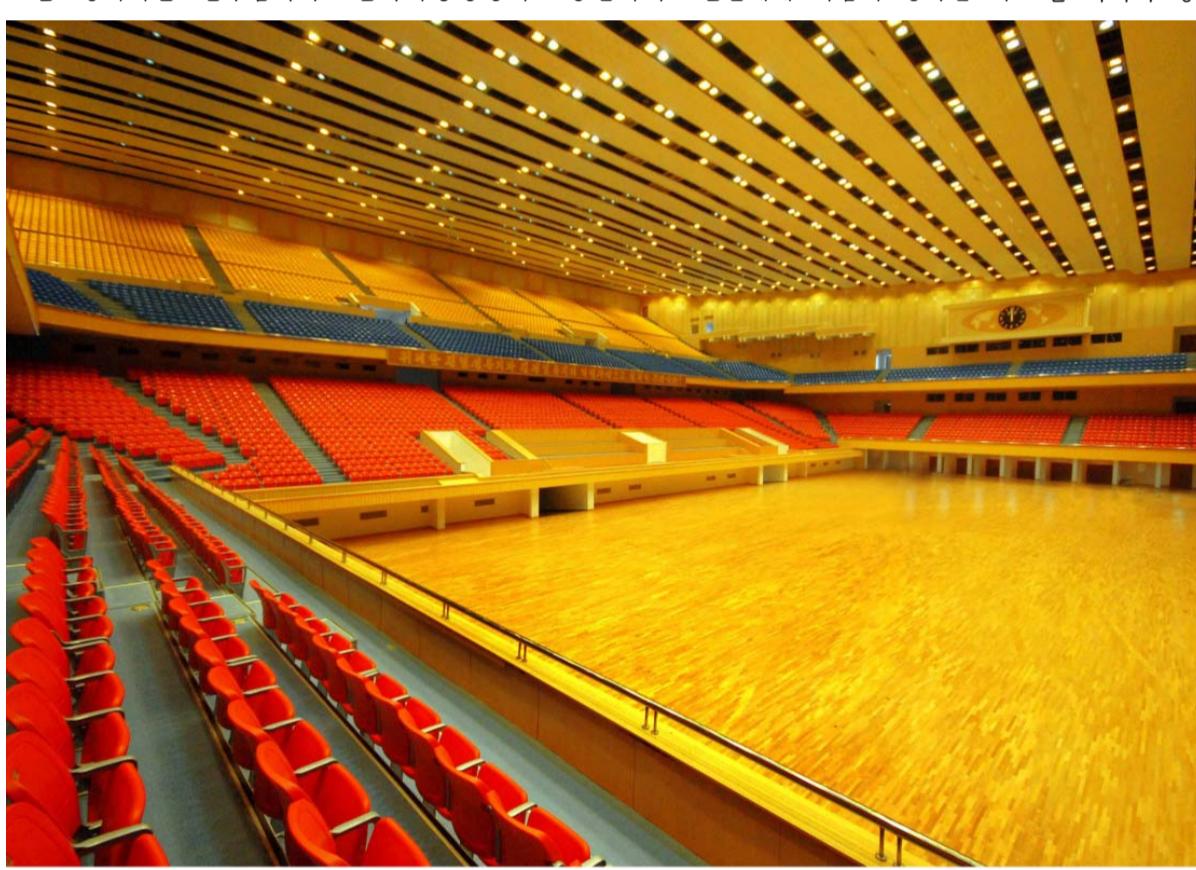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현신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거창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고 계신다.

## 《마식령속도》로 나아간다

올해를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거창한 창조와 혁혁의 해로 정하고 전체 인민을 력력적 투쟁으로 부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국경공업대회에 참석하시여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강령적 과업을 밝혀주시었으며 해당기관, 통문술공장, 송도원청년야외극장, 문수물놀이장 건설장, 마천해수욕장 등 여러 단위들로 나서는 과업과 방도도 이르시고 고무격려도 하시였다. 온 나라 인민이 애국충정의 일념을 안고 뜻깊은 7월과 9월의 경축광장을 통하여 생생적 양상을 일으키고 있던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기자》라는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여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지도록 하시였다.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에서 영웅적 위훈을 펼쳐온 군인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돌격전으로 《마식령속도》를 창조하여 스키장건설을 올해 안으로 끌어내며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시며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문이다.

강성번영하는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불러일으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며 생산자들에게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밝



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 나날에는 어버이수령님의 심오한 사상과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력도하시던 첫 시기에는 문학예술부문에서 혁명이 일어나도록 하시려 낮파 밤을 이어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

## 그날의 맹세

운명을 수호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통남산의 맹세와 더불어 걸어 놓았고 있다.

그 누가 내 마음 물라준대 도 회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철령과 오성산의 칼바탕길, 적들의 총구가 지친

사나운 풍랑도 폭풍 도 헤쳐 조선을 이끌고 미래로 가리라는 그날의 뜨거운 맹세파 그대로 이 땅에 현실로 펼쳐져 공화국은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떨치게 되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통남산마루에서 다진 애국의 맹세를 실천하여 이

땅우에 위대한 강국을 우뚝 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뜻과 위업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던 조선을 빛내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현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위대한 창조와 혁혁을 다계단으로 안아왔다.

조체의 CNC기술개발과 함께

나는 북을 빈번히 찾곤 한다.

40여년세월 이국땅에서 살면서 공화국을 래왕한 것

을 루루이 다 품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내가 북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소감은 매번 다르다. 이번 방문에서도 역시 그러했다.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으며 평양에서

온로동직원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보고난 감상은 한두마디의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것이다.

민간열병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잘 째이고 세련된 열병종대들의 보무당당한 행진모습, 열광적인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노도쳐가는 군중시위대열의 장쾌한 모습은 공화국의 65돐사를 염볼 수 있게 했다.

더우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로 충만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실이 그리하다. 불과 2년도 안되는 기간에 평양을 비롯한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사실과 이러한 북의 새 면모에서 공화국의 밝은 전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온 나라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드시는 타월하고 인민적인 령도자,

령도자의 뜻과 위업을 애국충정으로 반드시 민인이 있어 공화국은 머지않은 앞날에 세계의 정상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재상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우리 동포들속에서는 김정은시대의 미래를 락관

는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아래에 대규모파수원이 건설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고산파수농장능력확장공사가 마무리되고 사파바다가 멀쳐지게 되면 《철령아래 사파바다》라는 새로운 선경이 생겨날 것이라고 하시며 청춘파원으로 변모되는 파일생산지의 래일을 기쁨속에 그려보

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가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그 방향과 방도도 가르쳐주시였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온 나라에 최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들의 CNC화, 무인화가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그이의 헌신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로 이어지고 있다.

6월초 고산파수농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시였다.

남홍청년화학련합기업소

를 찾으시어서는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

을 높이는데서 이 기업소

가 매우 중요한 임무를 지

고 있다. 그이의 발걸음은 자

속자속 사람들에게 박

차였고 그이의 시간은 시대

를 빛내이고 세월을 주름잡

는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오

게 하는 창조와 비약의 한초

였다.

이렇게 《마식령속도》의

불길을 지펴주신 그이께서는

이 땅에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마식령속도》를 창

시다.

창성군을 찾으시어서는 창성식료공장, 창성각과 창성국수집, 은덕원, 창성군문화회관을 돌아보시고 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푸른바다를 불러일으키시였다. 그이의 발걸음은 자속자속 사람들에게 박차였고 그이의 시간은 시대를 빛내이고 세월을 주름잡는 대비약, 대혁신을 안아오게 하는 창조와 비약의 한초였다.

본사기자 주일봉

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데 대해 호소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예지와 비법하고 정력적인 령도의 결과이다.

쳐주시였다.

은하과학자거리의 찾으시에서는 시공을 손색없이 정밀 잘하였다. 부역과 살림방, 서재에 비치된 가구들의 질도 대단히 높아서 하시였고 립체를 동영화관을 돌아보실 때에는 앞으로 풍라임체를 립체를 동영화관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수 있는 것만큼 관람조직과 설비판리를 잘하여 영화관운영을 정상화하여 오르는 조국의 모습과 자신들의 유품하고 문명한 생활을 그려보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인민, 만난 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우리 인민이 다시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자랑찬 결실이다.

지난 9월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은하과학자거리와 개관된 평양체육관, 통일민원유원지 유회장에 새로 건설한 립체를 동영화관과 전자오피관, 운동장에 이른 문수물놀이장건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집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현지지도하며 모든 대상들이 한점의 손색도 없이 완공되도록 일일이 가르

이름도 《류경구강병원》으로 지어주셨다.

그뿐이 아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집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살립집의 환충한 충족를 오르시며 건설정형

로 쌔아 21세기 판권 악단 장경 겸 수석지휘자 빠웨 오브сан니꼬브는 김정은령도자의 령도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분야에서 큰 전진을 이루하고 있다고 자기의 성정을 펼쳐하였으며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재미동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보신지 1년만에 공화국은 10년 만큼 변했다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마식령속도》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현신의 령도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에 대비약, 대혁신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있으며 강성부흥의 레일이 앞당겨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 늘어나는 행복의 창조물들

이 땅의 모습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사회주의문명국을 지향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있다.

지난해에 그 모습을 드러낸 창전거리와 인민극장, 통

라인민유원지와 류경원, 인

민야외빙상장과 통일거리

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경이적인 사변들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위해 끊없는 희고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지난 9월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은

하과학자거리와 개관된 평양

체육관, 통일민원유원지 유

회장에 새로 건설한 립체를

동영화관과 전자오피관, 운

동장에 이른 문수물놀이

장건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

집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

설대상을 현지지도하며

모든 대상들이 한점의 손색도

없이 완공되도록 일일이 가르

이름도 《류경구강병원》으로

지어주셨다.

그뿐이 아니라.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

집건설장을 찾으시였을 때에는 살립집의 환충한 충

족를 펼쳐하였다.

그리고 9월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은

하과학자거리와 개관된 평양

체육관, 통일민원유원지 유

회장에 새로 건설한 립체를

동영화관과 전자오피관, 운

동장에 이른 문수물놀이

장건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

집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

설대상을 현지지도하며

모든 대상들이 한점의 손색도

없이 완공되도록 일일이 가르

이름도 《류경구강병원》으로

지어주셨다.

그리고 9월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은

하과학자거리와 개관된 평양

체육관, 통일민원유원지 유

회장에 새로 건설한 립체를

동영화관과 전자오피관, 운

동장에 이른 문수물놀이

장건설장과 미림승마구락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

집건설장을 비롯한 여러 건

설대상을 현지지도하며

모든 대상들이 한점의 손색도

없이 완공되도록 일일이 가

#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최선의 조국통일방도

절세의 이 국자이 시며 민족의 영원한 대양이 신민족으로서는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 동당 제6차대회에서 고려민주권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려민주권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전체 조선민족의 지향과 요구, 분별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엎어 반영하고 있는 가장 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방법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북과 남은 오래동안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고 어느 일방도 자

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

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북

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

여 대결한다면 분별의 지

속과 전쟁밖에 초래 할것이

없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방대한 무력이 침에 대처되며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련방제통일이 아닌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루 할수 있으며 련방제방식에 기초한 민족통일을 실현 할수 있다.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고자 해도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걸밖에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적대시하

여 대결한다면 분별의 지

속과 전쟁밖에 초래 할것이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제제대

결의 종착점은 전쟁이라는

것을 뚜렷히 알고 도처히 이

루어질수 없는 《제도통일》

의 험된 당상에서 깨여나야

민족의 통일을 막고 혁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세력에 맞서 싸워나가자

##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 투쟁선언

남조선의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0.4선언 발표 6돐을 맞으며 5일 부산광장에서 집회를 가지고 북남 공동선언행을 위한 투쟁에 나설것을 선언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리명박 《정권》에 이어 현 집

남북공동선언이 리행되었

는것이다.

공화국은 북남관계를 호상함부로 날뛰지 말데 대한 공화국의 경고에 당겨진 깊은 뜻을 새겨들고 분별있게 처신할 대신 《상호존중의 정신》이니 뛰니 하는 당치않은 말을 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보수당국

은 앞에서는 《대화》니,

《신뢰》니 하고 돌아앉아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을 떠들어댔다. 침략적인 외세와 악합하여 북침불장난소동을 하루가 멀다 하게 벌려놓으며 혁명전쟁의 불구름을 물어왔다.

남조선의 집권자가 앞장에 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

한 통일》을 떠들면서 존엄

높은 공화국의 체제와 신성한 제도를 비방중상하고 어용언론, 《전문가》를 지어 인간쓰레기들까지 내몰아 북의 체제와 제도를 모해하고 협상을 피어한 《합창》으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부모와 자식간에 오가는 남조선보수당국이 할 말이 아니라 들을 말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상호존중》이란 말은 남조선보수당국이 할 말이 아니라 들을 말이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목으로 중상모독하면서 대결을 조장격화시키며 주제넘게 그 누구의 《핵포기》니, 《변화》니 하고 공화국의 국가건설로선까지 험한 《상호존중》이 떠드는 《상호존중의 정신》인가.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력대 군사과 죄

# 북침을 노린《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책동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45차 《년례안보협의회》에서 다음해 상반년 까지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표로 해한 뒤 그 시기를 확정하기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국방부는 《우리가 북의 핵과 미싸일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있지가 핵심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준비가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전작전권》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하다면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대응준비》란 어떤 것인가?

남조선의 언론들은 이에 대해 《북의 핵과 미싸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중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싸일방어체계〉 구축시점이 〈전작전권전환〉 시기를 결정할 판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조선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킬체인》은 공화국의 핵과 미싸일 기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미싸일 공격체계로서 탐지에서부터 쇠페, 결심, 선제타격에 이르기까지 그 실방방식이 완전히 선제공격적이다. 남조선당국은 선제공격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순간 임의로 《북미싸일 공격 정후식별》이라

는 구실을 내대고 이 체계를 이용하여 북침공격을 단행하려 하고 있다.

남조선판 《미싸일방어체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와 《페트리오트》 미싸일에 기초한 미국의 미싸일방어체계의 한 고리로서 《방어》의 간판을 단 선제공격체계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미 지난 7월에 발표한 《2014~2018년 국방증기계획》이라는데서 《킬체인》을 구축하는데 69억 9,000만 US\$를 들여 다목적 군사위성 5기와 2만m상공에서 지상물체를 식별하는 미국의 고고도무

인정 착기 《글로벌 호크》의 도입, 지대지 탄도미싸일(거리 500~800km)과 공대지 미싸일(거리 600km) 등을 실전배치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화국의 미싸일을 오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싸일방어체계》 구축에 16억 1,300만 US\$를 들이밀어 다음과 같이 2014년까지 조기 경보례이다를 도입하고 항공감시통제기를 4대에서 7대로 늘이며 2016년부터 지대공 요격미싸일 《PAC-2》, 《PAC-3》을 각각 수백 기씩 추가 배치하고 있다.

남조선당국은 다음해 《국방예산》에서도 군운영 유지비는 3.6% 늘인데 비해 이

협의회》 이후에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작전권전환》이라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 《미싸일방위체계에서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남조선의 참가를 시사하였다.

남조선의 약당들과 언론들은 《미국방장관이 말한 상호운용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편입되기를 부인하며 그 무슨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 개발》에 대해서만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남조선 각계는 군부당국이 미국산 《PAC-3》 미싸일을 도입하고 미싸일방위체계 운영에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을 이용하여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과파하는 외세의 위협천만한 미싸일방위체계에 가담하는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사실들은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시대착오적인 동족대결과 전쟁책동을 포기 하지 않으면 그들의 북침야망이 얼마나 짚고하고 악랄한가 하는 것을 다시금 보여 주고 있다.

미국방장관도 이번 남조선 미국 《년례안보

핵, 미싸일 위협은 어디서

지난 9월 30일부터 조선동해에서 비밀리에 공화국을 겨냥하여 감행된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였던 미국의 핵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주축으로 하는 타격단이 10월 4일 부산항에 기여하였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타격단과 미싸일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다놓고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소동들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그 누구의 《위협》이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타

격수단들과 술한 미싸일들을

가지고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더우기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 그 무슨 《맞춤형 협약 전략》이라는

설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그것이 그 누구의 《도발》을 억제하고 저들이 바라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된 군사적 압박공세라고 내놓고 들고 있다.

내외호전세력들이 핵타격단수단과 미싸일들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끌어다놓고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소동들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그 누구의 《위협》이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핵타격단수단들과 술한 미싸일들을 가지고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공화국 군대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뚜ば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승철



《전시작전통제권전환》 연기책동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

## 파쏘독재는 파멸의 길

1972년 10월 17일, 이날은 남조선의 이전 독재자인 박정희가 《비상사태》 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체제》를 조작한 날이다.

《유신체제》는 독재자의 영구집권을 합법화하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강제로 압박하여 북한 국악한 파쏘독재체제였으며 《두개 조선》 조작으로 민족을 영원히 물로 갈라놓으려는 분열체제였다. 이와 함께 미군을 무한정 불잡아두고 외세를 더욱 본격적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남조선을 영구한 식민지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국제체제였다.

《유신》 독재체제가 조작됨으로써 남조선은 자주, 민주, 애국적인 모든 것이 교살된 암흑천지로 되었으며 조국통일을 넘워하는 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것은 그대로 남조선청년 학생들과 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냈으며 그들을 대중적 항거에로 떠밀었다.

《유신》 파쏘독재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은 마침내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 학생들의 반 《정부》 투쟁으로, 나아가서 부산시내 수많은 로동자, 시민,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폭동으로 분출되었다.

폭압을 박차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부산의 청년 학생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독재 정권 퇴진하라!》,

말수를 없다.》고 고아대면서 성명의 임크도 채 마르기 전에 그것을 휴지장으로 만들고 외세와 암합하여 북남 대결과 북침전쟁연습에 피눈이 되어 날뛰던 《유신》 독재자의 책동과 조금도 달라.

남조선 각계를 격분시키고 있는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통합전보당의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도 《유신》 독재부활책동이 낳은 산물이다.

유권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로인세대의 지표를 얻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고 떨려놓은 도인회행각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현집권자는 《어르신들》이요 뭐요하면서 했던 공약은 전권 8개월 넘기기 전에 하늘공중으로 날아가고 말았다.

민족을 등지고 인민의 지향에 어긋나는 파쏘독재체제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력사는 파쏘독재를 일삼는 자에게는 오직 죽음만이 차례진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금 남조선의 각자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항거의 초불은 《유신》 독재부활을 결코 용납치 않으려는 민심의 강력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당국이 력사의 교훈과 인민들의 준엄한 경고를 외면하고 이전 《유신》 독재자의 전철을 밟는다면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유는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돈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남조선 각계 총은 《로인차별안》, 《국민무시안》, 《복지열망을 암울한 공약사기, 선거사기 행위》로 집권보수세력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바빠 난조선집권자

는 2012년 《대선》 때 현 남조선집권자는 65살이상의 모든 로인들에게 매달 열마간의 《기초년금》을 지불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리고 당선직후인 1월 9일에는 서울 효창동 《대한로인회》를 찾아가서 《평생 가족을 위해 현신한 어르신들께 안정된 후로를 보장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느니, 《하나하나 꼼꼼하게 쟁겨서 꼭 실천하겠다》는 느니 뭐니 하며 가 살스레 놀아댔다.

그런데 얼마 안되는 《기초년금》 공약마저 타당치 않은 구실을 내밀며 채워버렸으니 이것이 조금이라도 향심이 있는 행동인가.

남조선집권자의 《로인기초년금》 공약의 파기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제는 《대통령》 갑투를 울려놓았으니 《어르신》들은 거치장스럽다는 것이다.

에로부터 로인들을 천시하고 팔세하는자는 천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남조선의 로인들을 둘러주는지 못 할망정 하황한 공약으로 로인들을 우롱한 것은 너절한짓이 아닐 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이 겪는 생활상 고통을 체험해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는 현 남조선당국의 배신적인 공약과 기행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본사기자 명금룡

는 《사파》 놀음을 벌려놓고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리행이 어렵다.》는 얼토당토않은 말들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은 《세금수입이 예상밖으로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에 공약을 리행 할 수 없다고 나자빠지고 말았다.

남조선집권자가 저들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로인유권자들에게 들이미기 위해 애당초의 공약들은 《불가능한 것》. 《보호한 것》이라면서 비렬하게 험준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얼마 안되는 《기초년금》 공약마저 타당치 않은 구실을 내밀며 채워버렸으니 이것이 조금이라도 향심이 있는 행동인가.

남조선집권자의 《로인기초년금》 공약의 파기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이제는 《대통령》 갑투를 울려놓았으니 《어르신》들은 거치장스럽다는 것이다.

에로부터 로인들을 천시하고 팔세하는자는 천벌을 받는다고 하였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남조선의 로인들을 둘러주는지 못 할망정 하황한 공약으로 로인들을 우롱한 것은 너절한짓이 아닐 수 없다.

보건대 남조선집권자는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 자기 몸값을 떨구고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이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사례를 악화시킬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현집권자의 입은 가볍다 못해 경박하기 이를테다. 재잘거리기 가 세살 난 아이보다 더하면 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지금 그 입에서는 뱃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동족에 대한 독기를 품은 거친 말들이 철새 없이 울려나온다.

특히 집권자의 경우에는 출마한 후에는 《총무의회》에 참가하는 행위를 달아주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를 바로 청와대에 거두는 것이 각계의 평이다.

지금 남조선정부는 현 보수집권세력이 저지른 반민족적, 반인민정책으로 말미암아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대선》 때 내들었던 《선심성공약》들은 이러저러한 구실밑에 혼신짜처럼 모두

당하고 또다시 감옥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전작전권전환》이라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다. 《미싸일방위체계에서 상호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미싸일방위체계에 대한 남조선의 참가를 시사하였다.

남조선의 약당들과 언론들은 《미국방장관이 말한 상호운용성이》라는 것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에 편입되는 태도이다.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를 《전작전권전환》과 함께 2014년까지 조기 경보례이다를 도입하고 항공감시통

제단이 10월 4일 부산항에 기여하였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은 타

격단이 10월 4일 부산항에 기여하였다.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군단으로

공화국에서 인민체육인칭 호제정에 관한 정령이 발표된 때로부터 47년이 지나갔다. 인민체육인칭호는 나라의 체육발전에 특출한 공훈을 세운 체육인들에게 안겨주는 값높은 영예이다.

지난 수십년간 공화국의 체육인들은 자랑찬 체육성과로 조국과 민족의 영예를 만방에 펼치었다.

공화국에서 첫 인민체육인칭호를 받은 선수들은 신금단, 박두의(당시) 선수들이다. 런상선수였던 신금단은 평범한 철도로동자의 딸을 어엿한 체육인으로 내세워준 나라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국제경기들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세계체육상의 녀왕』으로 명성 떨쳤다.

제8차 세계축구선수권대회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 김경봉, 김정선수들 영예의 금메달 쟁취



2013년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 남자고전형 55kg급경기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윤원철선수

예로부터 조국이란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나서 자란 곳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조국은 인간의 참된 삶이 꾸리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담보되는 곳이라는 철리를 나는 꼬질많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빼어내기 뇌리에 새겨안았다.

나의 고향은 함경북도 무산군 남산로동자구이다. 태여난 첫날부터 조국의 품속에서 돈 한푼 안들이고 마음껏 희망을 꽂았으며 자란 나였건만 그 고마움을 심장으로 깨닫지 못하고 조국이 시련을 겪던 나날 일시적인 곤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돈에 눈이 어두워 비벌월경을 하다 못해 나쁜 놈들의 께임에 빠져 남조선에까지 갔었다.

남조선에 가면 잘살수 있을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곳에 밭을 둘어놓았건만 친구에게 빚을 빚은 개살구였다. 남조선에서의 하루하루는 그대로 고통이었고 악동의 련속이었다. 달콤하게 나를 유혹하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가 거짓이었다.

내가 살던 광주시의 집만

## 수기 삶의 보금자리를 찾아

놓고 보아도 그렇다. 창고나 다름없는 12m<sup>2</sup>짜리의 쪽방, 사방에 곰팡이가 쓸고 악취를 풍기는 집아닌 집에서 나는 고통스럽게 지내지 않으면 되었다.

내 경우만 그런것이 아니다. 현재 남조선에서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제집이 없이 새방살이를 하고있다. 집은 고사하고 끼니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남이 쓰다버린 물건들을 모아 연명해가고있는것이 그들의 처지이다. 제 한물도 지탱하기 힘든 보잘것없는 생계비마저 정장을 이루었다고 하여 끊기고나면 정말 살가워졌다.

내가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된것은 아들이 태여나서부터였다. 남조선에서 『탈북자』 짜지는 어른들만이 아니라 그 자식들에게까지 고통을 주고있다. 『탈북자』 자식은 어디서나 따돌림당하고 매를 맞고 물리워 집밖에 나가는것마저 꺼리고있다.



는 불평등한 사회, 인간의 정이란 찾아볼수 없는 메마른 세상에서 더는 살고싶지 않았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마다 서로 돋고 이끌며 화목하게,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하여 나는 안해와 함께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다.

사실 죄라고 하면 조국을 배반한것보다 더 큰 죄가 어

서 제노라고 하던 일본선수를 보기 좋게 타승하고 1등의 시상대에 오른 계순회선수, 제13차 세계녀자력기선수권대회 58kg급경기 주최를 리기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쟁취한 리성희 선수...

리금숙선수를 비롯하여 새세기에 조선축구열풍을 일으킨 너자축구선수들도 인민체육인대회에 당당히 들어섰고 윤금주, 흥은정, 조영철, 김은국, 염윤철, 안금애 등 세계선수권보유자, 올림픽경기 대회 금메달수상자들도 값높은 삶의 언덕에 올랐다. 그나마 홍창수, 정세대, 안영학 등 해외동포들도 인민체육인칭호를 수여받는 감동적인 화폭이 펼쳐졌다.

나라에서는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세계적인 체육강자들을 키워내고 체육인체육성과 집단체조발전 등에 이바지한 많은 체육부문 일꾼들, 감독들, 집단체조창작지도일꾼들, 교육자들에게도 인민체육인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그리고 키워준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국의 열정을 바쳐온 신금단, 한필화, 박영순, 정성옥, 계순회, 장경우, 흥시근, 박혜정 등 많은 인민체육인들을 김일성상제관인, 공화국영웅,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다.

지금 인민체육인들을 비롯한 온 나라 체육인들은 공화국을 명성높은 체육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진군의 앞장에서 국의 자우를 새겨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디에 있겠는가. 기꺼이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왔건만 어머니조국은 못난 자식, 병든 자식을 험하지 않고 대해같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 나를 품어 안아주었다.

나라에서는 새 생활의 보금자리를 편 우리에게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살림집과 가장집물까지 일식으로 마련해 주었다. 차디찬 남쪽세상에서 따뜻한 정이란 모르고 살아온 나였건만 지금은 다정한 동무들과 이웃들의 사랑과 정을 함께 받아들여 즐겁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하나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내가 안겨 살고 우리 후손들도 영원히 안겨 살 한없이 은혜로운 어머니조국의 품이다.

세상은 넓고넓어도 우리는 사회주의조국이 제일이다. 이것은 판이한 두 제도, 두 현실을 통하여 심장으로 절절한 진리이다.

함경남도 흥원군 남천

로동자구 39인민반

김광혁

복속에서 복을 모른다는 말이 있다. 흔히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받아온 혜택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가를 종종 잊고 사는 때가 적지 않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얼마전 실생활을 통하여 얻은 체험이 나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귀중한것인지 깨닫게 하였다.

내가 사업상 관계로 어느 한 나라의 병원에 들리었던 어느날이였다.

30대의 젊은 남자가 담가에 들려왔다. 알고보니 환자는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집제산의 전부인 염소 2마리를 팔려 간 아버지를 시시각각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후 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끝내 그 환자가 의사 한명없는 수술장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말을 전해듣게 되었다.

가슴아픈 그 사실에 접하는 순간 불현듯 가장 우월한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사람들모두가 돈 한푼 안내고 치료를 받는 우리 조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내가 그 병원의 사들에게 이제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

면 환자는 죽고만다, 왜 빨리 수술을 하지 않는가? 하자 그들은 환자족에서 아직 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연하게 말하는것이였다. 먼저 환자부터 살리고 그 다음 돈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말하자 그들은 두눈을 크게 뜨고 놀랄때 나를 바라보면서 머리만 기웃거렸다.

수술장밖으로 아버지를 찾는 환자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끊어졌다. 그녀는 병원을 나서는 사람들을 바래 우면서, 병원문력을 제집문턱인듯 스름없이 넘나들며 모든 의료봉사를 응당하게 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심장에 세긴다.

『정성』이라는 두 글자가 인간의 생명과 더불어 빛나고 이르는 곳마다에 새겨져 있는 『인민』이라는 말이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부를으로 정다운 그것이 곧 귀중한 나의 조국, 우리가 안겨사는 공화국의 품임을.

사람들모두가 복받은 삶을 누리는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조국에 있을 때는 미처 다

## 대동강맥주 - 동북아시아에서 최고의 막주 송이 소개

대동강맥주에 한참 못미친다고 하면서 대동강맥주의 맛이 가장 좋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는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맛보았지만 대동강맥주는 계속 사먹고 싶을 정도였다고 하면서 미국인들도 조선의 대동강맥주를 맛보면 좋아할것이다. 그들속에서 매우 인기가 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맥주맛을 비교하면 조선의 본사기자



- 만수교 청량음료점에서 -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한 가 정 ,

### 한 식 슬

꽃피는 락원에 기쁨은 넘치고

인민은 한가정 자랑은 넘치네

…

사랑으로 화목하고 정으로 따뜻한 이 땅 어딜 가나 『하나의 대가정』의 노래소리 끝없이 울려펴진다. 노래에도 있듯이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이 되어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려가고 있는것이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얼마전에도 어머니를 잃은 한 학생을 그의 친부모가

만났다.

우리가 영일이를 맡아 키우는게 어떻소. 물론 남의 자식을 키우다는것이 생각처럼 쉬운일은 아니요. 그러나 우

리 영일이를 친자식처럼 힘자라는것 잘 돌봐줍니다.

안해의 의향을 묻는듯 한 남편의 말에 최경애녀성의 눈굽은 확 달아올랐다.

『영일이를 맡아 키우는게 어떤가?』 이렇게 말하는 최경애녀성의 눈가에 추억의 빛이 살리였다. …

지금으로부터 7년전 어느 날 동평양제1중학교에 다니는 최경애녀성의 아들 괴성림이 집에 들어서며 『어머니, 우리 학급의 영일이 것이다. 광주에서 돌아갔어요.』라고 울먹이었다.

『영일이 어머니가?』 입속으로 따라와온 최경애녀성의 눈가에 영일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앓고있는 그녀성을 위해 남편이 약

그를 보니 더욱

되여 따뜻이 돌보아주고 있는 평양시 락원구역 정백2동 91인민반에 살고있는 괴성남과 그의 안해 최경애녀성의 소행이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을 뜯겁게 해주었다. 인간 사랑의 대화원에 펴여난 한 떨기의 꽃,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최경애녀성이 되려 준 이야기

돌보였다.

『언제부터 영일이를 맡아 키우게 되였는가요?』

『저희들이 영일이를 알게 된것은 7년전이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최경애녀성의 눈가에 추억의 빛이 살리였다.

지금으로부터 7년전 어느 날 동평양제1중학교에 다니는 최경애녀성의 아들 괴성림이 집에 들어서며 『어머니, 우리 학급의 영일이 것이다. 광주에서 돌아갔어요.』라고 울먹이었다.

『영일이 어머니가?』 입속으로 따라와온 최경애녀성의 눈가에 영일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앓고있는 그녀성을 위해 남편이 약

그를 보니 더욱

되여 따뜻이 돌보아주고 있는 평양시 락원구역 정백2동 91인민반에 살고있는 괴성남과 그의 안해 최경애녀성의 소행이 전해져 사람들의 가슴을 뜯겁게 해주었다. 인간 사랑의 대화원에 펴여난 한 떨기의 꽃,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들을 『통일신보』가 만났다.

최경애녀성이 되려 준 이야기

돌보였다.

『언제부터 영일이를 맡아 키우게 되였는가요?』

『저희들이 영일이를 알게 된것은 7년전이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영일이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영일이가 성립이의 집

서 구해 가지고 몇번 찾아간적이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최경애녀성은 영일이의 가정이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다. 최근하여 안해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난 남편 괴성남의 마음도 무거웠다. 생각에 잠겼던 괴성남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영일이를 맡아 키우는게 어떻소. 물론 남의 자식을 키우다는것이 생각처럼 쉬운일은 아니요. 그러나 우

리 영일이를 친자식처럼 힘자라는것 잘 돌봐줍니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마음은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오죽하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에 쇠도 드는다고 하였으라.

바로 그런 어머니의 심정으로 최경애녀성은 영일이를 위해 온갖 지성을 다 기울였다. 처음에는 어성비성해서 속을 안터놓던 영일이는 사심없이 대해주는 성립이 부모들의 진정을 느끼자 차츰 마음의 문을 열었다. 때로 확기애에 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여 가정에 웃음꽃을 펼쳐놓았고 때로는 성립이와 함께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나섰다.

우리와 만난 영일이의 중학교 담임교원이 하는 말이였다. 그 역시 영일이의 중학교 담임교원이 친자식처럼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도와준 고마운 스승이었다. 하지만 영일이의 성장에 바쳐진

하는것을 볼 때마다 최경애녀성은 아들 하나 더 낳고 싶었던 욕망이 성취되듯 같아졌다.

영일이를 친아들로 키울 결심이 더욱 굳어졌다.

이렇게 되여 영일이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영일이가 성립이의 집

으로 거처를 옮기던 날 괴성남은 만사를 체크하고 그를 맞을 준비를 했다. 『제집처럼 허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영일이를 위해 괴성남은 그 무엇인가 가득 담긴 구역지를 무겁게 들고가는 최경애녀성은 대화원에 다니며 몸보신에 좋다는 보약들도 구해다 먹었다.

이렇게 키운 아들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같은 대학으로 떠나던 날 최경애녀성은 자식들에게 제 손으로 무엇이든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 양복과 학용품들을 마련해 주고 푸짐한 축하상까지 차려주었다.